

220402대

98-6-18

8/24

<내 탓이요>가 중요한 이유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얼마 전의 일이다. 어느 종교단체의 표어였다고 기억한다. 그것은 바로 <내 탓이요>라는 글귀였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서 생겨진 병폐를 절감해서 인지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내 탓으로가 아닌 네 탓으로 치부해 버리는 습성이 IMF한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개혁, 환경개선등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의 요인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남이 해 주기를 바라거나 원망하는 감정이 쌓일 뿐 개선을 위한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 결과는 사태의 악화이다.

<내 탓이요>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곧 실천의지를 싹트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번거로움과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류는 과연 자손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물음과 함께 부상한 <환경호르몬>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라는 데에서 이 문제를 내 탓으로 떠넘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생물의 체내에서 호르몬 작용에 교란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다이옥신, PCB 또는 DDT등인데 이들은 우리들이 마구 쓰고 버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바로 내 탓이라는 생각에서 당장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하기 편리해서 또는 값이 싸서 라는 이유로 환경호르몬 발생의 원인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납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물과 에너지를 마음 내키는대로 사용하면서 대기오염과 기후온난화를 그리고 물부족을 탓하거나 그로 인한 생활불편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 하나 하나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데서 피해를 비껴나갈수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인간과 환경회의이후 92년도에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20년 그리고 지구환경회의 이후 5년간의 지구환경평가에서 보면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그 해결방안모색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과소비 생활수준을 고집하고 발전도상국가들은 인구억제를 외면하면서 지구환경위기를 상대방의 탓으로 몰아부치며 그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가 없다.

어떤 문제이건 거창해 보이지만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탓이요>라는 인식에서 출발된다.